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대치…오늘 타협 결과 주목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 불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은 3일 하루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재개되는 예산안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 사들이 3일 ‘조정 소소위’를 열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일(4일) 아침 3당 원내대표 회담이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 3당 합의 수정안을 나오길 바란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이처럼 냉각기에 접어든 것은 남북협력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 일부 사안에는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가장(합의가) 힘든 것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법인세 및 소득세 개정안도 여러 번 집중논의가 돼야 하는데, 몇 차례 얘기하다가 정리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원내대표 회의에서 빨리,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등 일부 합의

법인·소득세 인상도 이견

오늘 3당 원내대표 협상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어느 특정세력을 위한 정책도, 선거를 겨냥한 정책도 결코 아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계획한 일들”이라며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내년도의 예산안에 조속히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야당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안이 법제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드러내면서도 책임론은 상대방에 떠 넘기고 있어 추가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관련법을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며 “야당도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나라 공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며 여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단순히 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2일 밤 야당의 협상 중간보고를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년 예산 5300억원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10년내에 발전소 4기 폐지 지역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서둘러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보고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앞으로 10년내 영광 한빛원전 등 발전소 4기가 폐지되는 등 지역 에너지수급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인포 제74호에 실은 ‘에너지전환 패러다임과 광주전남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에너지수급 체계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 광주·전남지역 발전설비 용량의 5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발전소 4기가 폐지되거나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집중형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 책임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우선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성 있는 지역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저탄소 지역 에너지믹스(에너지원별 구성비)를 설정해 앞으로 광주 전남의 기후·에너지 계획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빛원전 1·2호기 해체계획서에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해야 하며, 원전해체 과정에서 피해를 겪는 주민의 지원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원전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역 차원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사와 협력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및 전환경연료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광주와 전남의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전담기구 설립·운영,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고려한 정부-지자체간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분산형 전원망 확충 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주민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지원, 수상 태양광·염전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원 및 사업화 모델의 지속적인 발굴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주요 국비사업 최종 반영 ‘불안’

市, 월전동~무진로 도로 개설 등 1조7803억원 반영

道, 남해안철도·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5조533억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된 광주·전남 주요 국비사업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 도는 7조1148억원의 국비를 요구했다. 정부 최종 예산안에는 광주 1조7803억원, 전남 5조53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앞서 기획재정부 조율작업까지 거쳐 잠정 확정된 광주·전남 국비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시한(12월2일)과 예산회계법상 기한을 동시에 넘기면서 일단 무산됐다.

광주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48억원, 월전동~무진로간 도로 개설 82억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18억원)을 요

청했다. 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레독스 흐름전지 소재부품 기업 성장 지원 20억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 지원 15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101억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187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운영 200억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477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3억3000만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9억 1000만원)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여당과 국민의당 협치로 일궈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를 비롯해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흑산도 소형공항,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사업,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2018 국제와이

즈넌 여수세계대회 개최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온 상태다.

전남도가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신규사업은 수산식품단지 조성 사업비 35억원과 여수 해상지상과학관 설계비 5억원, 여수 석유화학안전체험 교육장 조성 55억원 등이다. 이밖에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SOC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관계자는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이 진통을 겪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각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지도 예상돼 광주·전남 예산의 상정과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볼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가인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미만 및 예적금발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가입시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